대구 도시공원의 변천에 나타난 사회적 의미 해석[†]

이정연* · 정태열**

*대구경북연구원 · **경북대학교 조경학과

An Interpretation of a Social Implication on the Transition of the Urban Park in Daegu

Lee, Jung-Youn* · Jung, Tae-Yeol**

*Daegu Gyeongbuk Development Institute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was done for analyzing processes on the planning and opening of chronological urban parks in Daegu City since the 1960s, and for interpreting the social meaning on changes of the urban parks with regards to historical circumstances during that period.

In the 1960s, urban parks, which were recognized as one of urban planning facilities, were only designated for creating rather than created, although nationally several laws including urban planning act and park act were newly legislated. Rapid urbanization and increasing population in the 1970s led to create many urban parks. However, the policy for increasing parks had been not successful because of the lack of enough funds. In the 1980s, multi-purpose urban parks including stable area as well as active facilities were created for getting several attractions to urban residents. During this period, urban parks were recognized on an aesthetic perspective through vegetating plans on the city-beautiful movement for hosting consecutive international games. The citizen participation in urban parks and the increasing concern about urban environment were started in the 1990s, and the people living in an urban area were interested in the quantitative expansion and qualified renovation of the urban parks as well.

Finally, modernistic urban parks were first introduced in the late period of Chosun Dynasty, however their substantial introduction was done in the 1960s. Through this study, the concept of an urban park as a public resting place for citizen in Daegu was thought to be mostly established in the 1990s as we have investigated on the social meaning derived from the periodical changes of urban parks.

Key Words: History of the Park, Park Planning, The Value of the Park, Meaning of the Park

[†]: 본 연구는 2013년 한국조경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Corresponding author: Tae-Yeol Jung,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702-701, Korea, Tel.: +82-53-950-5786, E-mail: jungty@knu.ac.kr

국문초록

본 연구는 지방도시의 하나인 대구를 대상으로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시대별로 도시공원의 계획·개원과정을 분석하고, 이를 시대적 상황과 연관 지어 고찰함으로써 도시공원의 변천에 나타난 사회적 의미를 해석하였다. 1960년대에 도시계획법과 공원법이 제정되면서 법제도 내에서 도시공원이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이때에는 도시공원이 단지 도시계획시설의 하나로만 인식되어 조성보다는 지정에만 급급하였다. 1970년대는 급격한 도시화와 폭발적인 인구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도시공원의 양적 확보에 주력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계획기간 내에 공원 조성이 완료되지 못하였다. 1980년대는 연이은 대규모 국제대회 개최로 인하여 도시미화를 위한 각종 녹화계획이 수립되면서 도시공원의 미적 기능이 재인식되었으며, 도시민의 이용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정적공간뿐만 아니라 동적시설을 갖춘 복합적인 성격의 도시공원이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는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 증대와 함께 공원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표명 및 참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며, 도시공원의 환경적 기능과 효과의 부각에 따라 도시공원의 양적 확대뿐 아니라, 질적 개선도 함께 이루어졌다. 우리나라에 있어 근대적 의미의 도시공원 도입은 구한말부터이고, 본격적으로 도시공원이 조성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부터이다. 하지만, 본 연구를 통해서 도시공원의 변화과정에 나타난 사회적 의미를 종합해 볼 때 대구에서 시민을 위한 ‘공용(共用)의 휴식처’라는 본연의 의미와 목적에 부합되는 도시공원의 개념이 완성된 것은 1990년대에 와서라고 할 수 있다.

주제어: 공원사, 공원계획, 공원의 가치, 공원의 의미

1.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도시공간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도시공원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도시민의 생활형태와 문화가 반영되어 나타난 결과물로서, 도시의 변화과정 속에서 도시민의 필요에 따라 생성되어 시대적 흐름에 따라 변화·발전되며, 사회적 요구에 의해 소멸되는 도시문화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 ‘공원’이라는 개념이 통용된 것은 1876년 개항 이후에 외국의 다양한 문물과 함께 공원에 대한 정보가 유입되면서 부터이다(강신용, 1995). 비록 공원이라는 것이 외국에서 도입된 것이긴 하지만, 도입 당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공원의 발달은 우리나라의 근·현대사와 함께 이루어져 왔다. G. Cranz(1980)는 도시공원이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심리학적 변화과정에 의해서 위치, 크기, 형태, 시설물과 경관 등이 영향을 받는 복합적인 도시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공원의 변천사적 연구는 공원계획과 설계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중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도시공원 발달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상태이다. 도시공원의 변화과정에 대한 연구로 강신용(1995)은 개항 이후 일제강점기까지 전국에 조성된 도시공원의 수용 및 개원 과정에 대해 서술하였고, 김향자(1987)는 서울시를 중심으로 개항 이후 현재까지의 도시공원계획과 도시공원의 변화에 대해 서술하고, 이를 통해 도시공원의 문제점을 고찰하였다. 김덕삼(1990)

은 개항 이후 현재까지 서울의 도시공원 변천을 도시계획의 흐름과 연관시켜 설명하였고, 민주현(1994)은 서울을 중심으로 개항 이후 1990년대까지의 기간 동안 도시화, 공원녹지정책, 도시개발사업 등이 도시공원에 미치는 작용력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통해 도시공원의 변천을 서술하였다.

도시공원의 시계열적 변화과정에 대한 이 같은 연구들은 대부분 수도권 서울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도시공원의 변천을 도시계획이나 도시개발사업 등과 관련지어 설명함으로써 사회적·정치적 상황과 도시공원의 변천과의 연관성에 대한 언급은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개항 이후부터 현재까지를 연구의 시간적 범위로 설정하여, 장기간에 걸쳐 공원의 변천을 언급함에 따라 도시공원의 개괄적인 변화과정을 설명하는데 그쳤고, 현대에 있어서 도시공원의 변천에 대한 언급은 미비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도시의 하나인 대구를 중심으로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도시공원의 변천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하고, 그 배경이 된 시대상을 연관 지어 고찰함으로써, 도시공원의 계획·개원과정에 나타난 사회적 의미를 해석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지방도시의 도시공원 발달과정을 이해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함과 동시에, 앞으로의 도시공원 조성에 있어 그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196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를 대

상으로 하였다. 1962년 도시계획법이 수립되고, 1967년 공원법이 제정되면서 도시계획과 더불어 공원정책이 수행되어져 왔으므로 196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의 시기를 다루었다.

그리고 도시공원의 변천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이 대부분 수도권 서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방도시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지방도시의 하나인 대구를 공간적 범위로 설정하였다.

또한 대구의 도시계획구역 내 공원 중 택지개발사업에 의한 공원을 제외하고 달성공원, 경상감영공원, 앞산공원, 망우공원, 두류공원, 범어공원 등 대구 시민에게 역사성 및 인지도가 높은 도시공원¹⁾과 1990년대에 조성된 공원 중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봉무공원과 대구대공원, 국제보상운동기념공원, 2·28기념중앙공원을 포함하여 총 10개소의 공원을 연구대상의 범위로 한정하였다.

본 연구는 각종 문헌자료 조사를 토대로 현지답사와 인터뷰 등을 통해 대구 도시공원의 발달과정을 당시의 사회상·시대상과 연관 지어 특성을 규명하였다. 우선 대구시사 및 공원계획서, 관보, 신문 등을 통해 대구의 공원계획 및 개원과정에 대한 시계열적인 자료를 수집하였다. 다음으로 대구의 대표적인 지방신문을 통해 당시의 시대상과 사회상을 종합·분석하고, 이를 도시공원의 변천과정과 연관 지어 고찰하였다. 신문은 대구매일신문을 선정하여 1958년부터 현재까지 공원 관련 기사들을 검색·수집하여 관련 내용을 조사·분석하였으며, 문헌자료 조사로 부족한 부분은 관계자 인터뷰와 현지답사 등으로 보충하였다.

II. 시대별 대구 도시공원의 변천

1. 1960년대 대구 도시공원의 변천

1960년대 이전은 일제강점기와 해방, 한국전쟁과 전후 복구기 등을 거치면서 정치적, 사회적으로 혼란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체계적인 공원계획과 조성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달성공원은 대구시²⁾에서 유일한 공원이었다.

달성공원은 고대 달구벌 부족국가의 성터로 대구에 있는 도시공원 중 가장 역사가 오래된 공원으로 고종38년(1905년) 처음 공원으로 조성된 이래(향토사연구회, 1996), 일제강점기에는 신사가 건립되는 등 각종 성역화사업이 추진되었고,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군사시설 주둔지로 활용되었다. 1959년 12월 달성공원을 점령하고 있던 5군관구 사령부 통신중대가 이전을 결정하고 난 후에도(대구매일신문, 1959.12.5) 공원의 소유권 문제로 달성공원 재정비는 추진되지 못하였다. 달성공원 재정비는 1964년 3월 국유 재산인 달성공원이 대구시에 무상으로 양여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하였다(대구

표 1. 달성공원 시설계획 및 예산(1964년)

시설명	사업비(원)	비고
산책로	1,100,000	총연장 2,600m
담장	3,200,000	총연장 1,230m, 높이 2.5m
정문·수위실·주차장	520,000	-
중앙분수와 주위화단	2,600,000	주위화단 753평
대화단	1,570,000	3,188평(모란원, 작약원, 장미원)
아동유희장	820,000	2,224평
야외 아동휴식처	1,950,000	-
야외 성인휴식처	3,850,000	-
온실·묘포장	1,750,000	150평
야외노천극장	2,840,000	건물 100평, 야외 520평
소동물원	4,180,000	-

자료: 대구매일신문 1964년 7월 11일자

그림 1. 달성공원 조성계획도(1964년)

자료: 대구매일신문 1964년 7월 11일자

매일신문, 1964. 3.26).

달성공원의 관리권을 넘겨받은 대구시는 공원조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예산확보를 위해 시민과 국비를 최대한 할애하고, 시민과 대구 출신 재벌들의 후원을 얻는 등 공원 재정비계획의 대략적인 원칙을 세우고 조성사업을 벌였다. 공원의 설계는 당시 경북대학교에서 조원학을 강의하던 임순문 교수에게 의뢰되어 1964년 7월 완성되었다(표 1 및 그림 1 참조).

하지만 이 계획은 재정 부족 등을 이유로 실현되지 못하고, 달성공원은 제1차 도시계획재정비가 실시되면서 1965년 2월 2일 건설부고시 제1387호로 다른 25개의 공원과 더불어 도시공원으로 지정된다.

달성공원 재정비는 1966년 다시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여 1966년 8월 단군숭배회가 사용하고 있던 공원 내의 신사건물을 철거하고(대구매일신문, 1966.8.14), 같은 해 11월 30만원의 현상금을 걸고 공원설계 현상공모를 실시하여 고주석 씨가 당선되었다. 그 후 1967년 11월 조선시대 건축양식의 정문이 준공되고(대구매일신문, 1967.11.18.), 종합문화관이 세워지는 등 공원 재정비가 이루어졌다(그림 2 참조). 하지만, 1년 만에 공사를 끝

그림 2. 1960년대의 달성공원

자료: a: 대구매일신문 1967년 11월 18일, b: 1970년 4월 20일자

낼 계획이었던 달성공원은 예산 문제로 공사가 늦어져 공사 3년 만인 1969년 8월 1일 개원하였다(대구매일신문, 1969.7.31). 당초 계획했던 어린이놀이터, 도서관, 분수시설, 연못 등의 일부 시설은 예산부족으로 손대지 못하고, 여론에 쫓겨 미완성인 채로 문을 열었고, 당시 공원 입장료는 어른 20원, 어린이 10원이었다.

1969년 개원 당시 달성공원 내에 동물원은 없었으며, 동물원은 다음해인 1970년에 개원하였다. 창경원 동물을 분양받아 1970년 3월 달성공원 동물원의 기공식을 거행(대구매일신문, 1970.3.3), 같은 해 5월 2일 완공시켜 시민에게 공개하였다(대구매일신문, 1970.5.3).

1960년대에 계획·개원된 또 하나의 공원으로 중앙공원(現 경상감영공원)이 있다. 중앙공원이 조성된 곳은 조선시대 감영(監營)이 있던 장소로 해방 이후에는 경북도청, 공무원교육원 등으로 사용되어온 곳이다. 이 부지에 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휴식처로 이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경북도청 이전안이 확정된 1950년대 말부터 제기되었다. 당시 대구에는 달성공원 외에 변변한 공원이 하나도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대구시는 1965년 2월 2일 건설부고시로 이곳을 공원(당시 포정공원)으로 지정하였다.

그러나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대구시의 결정과는 달리 1966년 5월 경상북도는 이 부지에 관광호텔과 백화점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발표(대구매일신문, 1966.5.31)하여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게 된다. 당시 건설부가 시민들의 여론과 결정·고시 후 1년 밖에 지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부지의 공원화가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건은 일단락되었다(대구매일신문, 1966.6.23). 이같이 공원 조성을 원하는 시민들의 여론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공원 조성은 실현되지 못하고 계속 방치되었다.

공원조성계획이 걸돌고 있던 1969년 신탁은행 측에서 공원 개발을 맡아 일정기간 동안 이용료 징수 후 대구시에 기부·채납할 계획을 밝혔다(대구매일신문, 1969.5.31). 그러나 영리 목적의 공원조성계획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대구시 측의 반대로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대구시는 1970년 1월에 가서야 舊도청사 부지 공원조성계획

그림 3. 중앙공원

자료: a: 대구매일신문 1970년 3월 3일, b: 1970년 10월 27일자

을 확정하고, 그 세부적인 계획을 밝혔다. 잠정적으로 포정공원이라 명명된 공원의 설계는 건축 전문가인 이구 씨에게 의뢰하였다(대구매일신문, 1970.1.20). 이 계획에 따라 대구시는 1970년 3월 기공식을 갖고 같은 해 8월말 완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그림 3의 a 참조). 그러나 당초 공원 부지 내의 아케이드를 민간투자자로 신축하여 매각대금을 공원 공사비로 충당하려고 했던 대구시의 계획은 1970년 10월 공시공매계획 좌절로 큰 차질을 빚게 되고, 이에 따라 공원은 당초계획보다 2개월 늦어진 1970년 10월 개원하게 된다. 개원 당시 공원 입장료는 어른 30원, 어린이 10원이었다(그림 3의 b 참조).

대구시는 포정공원의 명칭을 시민의 공원이라는 친근감과 애착심을 가질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심의위원을 선정하고,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간담회에서 당시 포정공원의 새로운 명칭에 대한 안으로 중앙공원, 선화당공원, 선화공원, 백만공원 등 여러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표결에 의해 결국 '중앙공원'으로 결정되었다(대구광역시 중구, 1998).

2. 1970년대 대구 도시공원의 변천

1960년대에 달성공원과 중앙공원이 개원하였지만,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백만을 넘어선 대구 시민이 이용하기에는 대구의 공원은 너무 부족한 상태였고, 계속되는 인구 증가와 도시화로 공원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1965년 2월 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별다른 계획 없이 방치되고 있던 앞산공원을 자연공원 성격을 띤 대규모 공원으로 개발하고자 1970년부터 앞산공원 개발사업에 착수하여 1971년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였다(표 2 참조). 계획 당시, 앞산공원은 규모가 커 조성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전체적인 개발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계곡별로 성격을 달리한 5대 지구로 분류하여 1년에 한 지구씩 1975년까지 연차적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대구시, 1971).

그러나 앞산공원 역시 민간자본 유치 저조와 대구시의 재정난 등의 이유로 개발이 늦어지게 된다. 앞산공원 개발은 1975년 12월 앞산순환도로가 준공되면서 다시 탄력을 받게 된다.

비록 준공 시기를 여러 번 넘기긴 하였지만 제2지구에 케이블 카가 설치되어 1974년 9월 시민들에게 공개되었고(대구매일신문, 1974.9.19), 각종 놀이기구를 갖춘 유키장은 1979년 4월에

표 2. 앞산공원 지구별 시설계획(1971년)

지구별	시설용지별		면적	비율
	구분	시설		
1지구	도로 및 광장	도로	33,030	2.6
	수경시설용지	잔디광장, 저수지	34,650	2.8
	휴양시설용지	천변휴식지, 야영장, 피크닉장	69,680	5.6
	유흥시설용지	아동유흥지	2,000	0.2
	운동시설용지	골프장	21,900	1.7
	교양시설용지	기념광장	13,500	1.1
	편익시설용지	주차장	4,900	0.4
	녹지시설용지	이용녹지	1,074,340	85.6
	합계		1,254,000	100.0
2지구	도로 및 광장	도로, 광장	42,280	4.4
	수경시설용지	식물원, 잔디광장, 저수지	248,000	25.7
	휴양시설용지	천변휴식지	86,000	8.9
	유흥시설용지	유흥광장	17,600	1.8
	편익시설용지	주차장	7,200	0.7
	녹지시설	이용녹지	564,920	58.5
	합계		966,000	100.0
3지구	도로 및 광장	도로	18,360	2.0
	수경시설용지	잔디광장	272,800	29.8
	휴양시설용지	천변휴식지, 피크닉장	41,950	4.6
	교양시설용지	야외음악당, 식물원, 어린이회관	205,500	21.9
	편익시설용지	주차장	12,900	1.4
	녹지시설	이용녹지	363,490	40.3
	합계		915,000	100.0
4지구	도로 및 광장	도로	14,685	2.1
	수경시설용지	저수지	3,300	0.5
	휴양시설용지	천변휴식지, 야영장, 피크닉장	115,440	16.7
	유흥시설용지	유흥광장	14,900	2.1
	운동시설용지	운동광장, 풀장, 스케이트장	52,300	7.5
	편익시설용지	주차장	3,900	0.6
	녹지시설	이용녹지	488,475	70.5
	합계		693,000	100.0
5지구	도로 및 광장	도로, 광장	67,910	4.1
	수경시설용지	저수지, 식물원	114,300	7.0
	휴양시설용지	천변휴식지, 피크닉장	122,600	7.5
	유흥시설용지	유흥광장	14,900	0.9
	운동시설용지	운동광장, 풀장, 궁술장	48,100	2.9
	편익시설용지	주차장	47,000	2.9
	녹지시설	이용녹지	1,226,190	74.7
	합계		1,641,000	100.0

자료: 대구시, 1971: 41-58

완공되었다(대구광역시, 1998).

앞산공원 조성과 더불어 1972년에는 망우공원이 조성되었다. 망우공원의 조성은 1972년 4월 망우당 객재우 장군 동상이 제막되고 난 후에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1972년 11월 26일 건설부고시 제486호로 공원으로 지정된다. 공원의 이름은 임진왜란 때 활약했던 의병장 객재우 장군의 호인 망우당을 따서 망우공원이라 결정하였다(대구직할시, 1982).

1970년대 말에 가서 대구읍성의 네 개의 성문 중 하나인 남문의 복원 움직임이 있자, 대구시는 그 위치를 망우공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조선시대 편액대로 '영남제일관'이라 명명하여 증진하기로 하였다(대구매일신문, 1978.11.22). 대구시는 망우공원이 경부고속도로 동대구 진입로 변에 있어서 이곳에 대구 읍성으로 들어오는 최대 관문이었던 남문을 증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1981년 4월 영남제일관이 준공되면서 1970년대 말부터 논의되어온 남문의 복원이 결실을 보게 되었다.

이외에도 1970년대에는 대구 도심에서 서쪽으로 약 3km 떨어진 서구 내당동과 성당동 일원의 두류산이 두류공원으로 개발되기 시작한다. 두류공원은 1965년 2월 2일 건설부고시 제1387호로 공원으로 결정·고시되면서 공원 전체에 대한 계획이 마련되었다.

1966년 2월에 발표된 두류공원 종합계획을 보면 박물관, 대도서관, 야외음악당, 드라이브 인 극장, 실내체육관, 풀장, 종합경기장, 어린이놀이터, 식물원, 동물원, 양어장 등과 함께 케이블카와 두류산 정상에 높이 300m의 대구타워 설치계획도 포함되어 있었다(대구매일신문, 1966.2.25). 이는 재원 확보방안을 고려하지 않은 계획으로 이후 두류공원은 종합대공원이란 이름으로 설계만 된 상태로 유지된다.

그 후 두류공원은 별다른 조성계획 없이 방치되다가 1970년

그림 4. 두류공원 기본계획도(1974년)

자료: 대구시, 1974: 29

대에 들어서면서 공원 조성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1974년 두류공원 기본계획이 확정된다(그림 4 참조). 그러나 공원 전체 면적의 92.38%가 사유지로 부지매입 문제와 앞산공원 개발과 병행 실시에 따른 대구시의 재정난 등으로 인해 공원 조성은 지지부진한 상태를 면치 못하다가 1977년 5월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개원하였다.

3. 1980년대 대구 도시공원의 변천

1970년대에 앞산공원, 두류공원 등의 대규모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었지만, 민자유치 저조와 대구시 재정난 등으로 인해 계획기간 내에 공원조성이 완료되지 못했다. 하지만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구시의 직할시 승격, 시민의 여가에 대한 인식변화와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등의 국제대회 개최에 대비한 도시미화 등으로 인해 도시공원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조성 중이던 앞산공원과 두류공원에 대한 기본계획을 새로이 수정하고, 도시공원 조성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제1차 5개년 공원유원지개발계획(1982~1986)'을 수립하였다. 이와 동시에,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등 국제대회의 개최에 대비한 '도시녹화 7개년계획(1981~1987)', '푸른대구가꾸기 5개년계획(1982~1986)', '전시역의 공원화운동(1985~1988)' 등의 도시녹화 운동을 추진하게 된다.

우선 대구시는 1970년 개발에 착수하여 1971년부터 본격적인 공원조성에 들어간 앞산공원에 대해서 1980년 12월에 새로운 10개년 계획을 수립, 조성계획을 재정비하여 도시자연공원으로 개발하고자 하였다(대구매일신문, 1981.2.3). 이미 개발된 1지구(큰골)를 제외하고, 2지구(고산골)에는 어린이유희 위주의 시설을 배치하고자 하였다. 또한, 3지구(안지랑골·안일사와 송현동) 일대에는 교양·운동시설물을 조성하고, 4지구인 용두골에는 관광농원 등의 설치계획을 수립하였다.

대구시는 앞산공원 10개년 개발계획의 첫 사업으로, 4지구인 용두골에 전국 최초의 자연 심신수련장을 조성할 계획을 수립하여 1982년 7월 조성계획을 확정짓고, 같은 해 11월에 착공하여 이듬해 12월 완공하였다. 또 10년 무상사용 후 대구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주)대경개발 측과 삭도시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 1982년 8월 102대의 삭도시설을 허가 받아 1983년 5월 완공하였다(대구광역시, 1998).

앞산공원 조성계획과 함께 1970년대부터 추진되어온 두류공원 조성계획 역시 1980년 5월 기본계획이 대폭 변경되었다.(대구매일신문, 1980.5.22) 기존의 조성계획은 위락시설과 운동시설이 섞여있어 이용과 관리에 불편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어린이놀이터 등 위락시설은 동쪽으로 모으고, 운동시설은 서쪽에 배치하도록 계획을 수정하였다. 또 동물원의 규모를 줄이고 승마장 계획을 취소하였으며, 성당못을 정화하고 주변을 정비하여 시민의 휴식처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한편, 1978년부터 건

그림 5. 범어공원 종합계획도(1979년)

자료: 대구시, 1979: 60

설되기 시작한 야구장은 1981년 5월에 준공되었고, 두류도서관은 1981년 8월, 두류수영장은 1984년 7월에 완공되었다.

또한 동대구로(東大邱路)가 개통되고, 동부지역이 주택단지로 개발됨에 따라 균형 있는 도시개발을 위해 1979년부터 범어공원을 대단위 유희시설을 갖춘 어린이공원으로 개발하고자 하였다. 범어공원은 1965년 2월 공원으로 지정된 곳으로서, 대구시는 당시 추진 중이던 어린이회관을 범어공원 내에 건립하기로 확정하고 1979년 12월에 기본계획을 완성하였다(그림 5 참조).

범어공원은 어린이시설이 주가 되도록 계획의 방침을 세워, 어린이과학관, 어린이문화관의 건립과 함께 어린이 유희시설을 4개 지구에 분산 배치하여 각 지구별로 안배하여 민간자본의 유치가 용이하도록 설계하였다. 또 달성공원 동물원의 협소로 새로운 동물원 부지를 모색하던 대구시는 두류공원에 설치하려던 동물원 계획을 대폭 축소하고, 범어공원 내에 동물원을 분산하여 배치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이 계획에 따라 1983년 11월 어린이회관이 준공되고, 84년 12월 학생과학관이 준공되었다. 그러나 범어공원의 대규모 어린이공원 조성 계획은 민간자본 유치와 부지매입 문제 등으로 유희단지 조성이 난관에 부딪치고, 결국 공원 조성계획에 참여했던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유희시설은 착공되지 못한 채 무산되었다(대구매일신문 1985.3.19).

4. 1990년대 이후 대구 도시공원의 변천

1992년 리우환경회의 이후 세계적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이러한 상황은 국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도시 내의 환경오염 완화를 위해서 도시공원의 중요성이 새삼 강조되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도심지에 위치한 기존 도시공원의 재조성과 외곽지 대규모 도시공원의 조성에 주력하게 된다.

우선 동부지역의 외곽지에 위치한 봉무공원이 종합레포츠공원으로 개발되었다. 봉무공원은 1965년 2월 공원으로 지정·고시되고 1970년대 후반에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된 곳이다. 1978년 계획 당시에는 이곳을 자연공원의 성격을 띤 정적인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전체적으로 정적인 공간으로 계획하였다. 하지만 부분적으로는 동적위락도 가능하도록 계획의 방향을 수정하고, 전망휴게소 및 전망대, 자연 동·식물원, 수족관, 유물전시관, 야외음악당, 클럽하우스, 수영장 및 스케이트장 등의 시설계획을 수립하였다(대구시, 1978). 그러나 이 계획 역시 재정 부족 등의 이유로 실현되지 못하고 10년 이상 방치되고 있었다.

대구시는 이러한 봉무공원을 종합레포츠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1990년 1월 조성계획을 발표하고, 8월부터 공사에 들어가 1992년 10월에 공사를 완공하였다. 이로써 봉무공원은 1984년에 완공된 사격장을 포함하여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배구장, 농구장, 게이트볼장, 씨름장, 롤러스케이트장과 20여종의 체력단련시설을 갖춘 레포츠공원으로 조성되었다.

또한, 대구시는 시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레저인구 및 공원 이용자 수가 급증하고, 공원시설에 대한 시민의 욕구가 다양하게 변모함에 따라 대덕산 일대를 약 670만평 규모의 대구대공원으로 개발하여 지역사회에 필요한 레크리에이션, 위락, 문화 및 교육 등의 활동이 가능한 도시자연공원으로 조성하고자 계획기준연도 1991년, 계획목표연도 2011년도로 개발계획을 수립하였다(대구시사편찬위원회, 1995).

대구대공원은 1993년 12월 대구고시 제235호로 공원으로 지정·고시된 곳으로 수성구 대덕산 일원의 범물동, 삼덕동, 내환동, 옥수동, 노변동 일대에 걸친 대규모 공원이다. 특히 대구대공원 내에는 2002년 월드컵대회와 2003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개최에 대비한 대구체육공원이 1996년 5월 11일 대구 고시 제76호로 별도 지정되어, 대구스타디움을 비롯한 국제대회 개최 수준의 체육시설들이 건립되었다. 이후 대구시립미술관이 개관하는 등 일부 공원시설들이 들어 서고 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구는 도심부의 녹지확보를 위해 도심에 위치한 기존 도시공원의 재정비와 새로운 도시공원의 조성에 주력하여, 중앙공원을 전면 재정비하여 경상감영공원이란 이름으로 개원하고, 동인공원을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으로 확대 조성하였다. 그리고 중앙초등학교 부지를 2·28기념중앙공원으로 조성하였다.

그림 6. 중앙공원조성기본계획 조감도(1996년)

자료: 대구광역시, 1996

중앙공원은 1970년 개원 이후 몇 차례의 정비를 거치면서 대구 중심부에 위치한 시민의 휴식공간 역할을 해 왔으나, 기존 시설물의 낙후와 시민이용행태의 변화 등으로 인해 입장객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었다. 1977년 1,358,461명, 1978년 1,445,153명이었던 입장객 수가 1980년대를 거치면서 해마다 줄어들어 1991년 321,000명, 1992년 449,000명으로 급격히 감소하게 된다(대구광역시, 1996).

이에 따라, 대구시는 중앙공원 재정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1995년 11월부터 공원 재정비를 추진하여 1996년 3월 기본설계를 마치고, 6월 실시설계를 확정하였다(그림 6 참조). 중앙공원 재정비계획은 대구 시민을 대상으로 공원 재정비에 대한 의식 및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수립되었으며, 이는 공원 조성에 시민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반영하였다는 측면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공원 재정비 비용은 시민운동인 '대구사랑운동'의 실천에 따라 대구은행 측이 약 30억 원을 부담하였으며, 1996년 11월 21일 기공식과 함께 본격적인 정비를 시작하여 1997년 10월 13일 준공되었다. 이와 함께 공원의 명칭도 대구의 역사, 문화적 의미를 되새기는 차원에서 문화재전문위원, 시민단체, 언론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경상감영공원으로 변경하였다. 새롭게 조성된 경상감영공원은 담장을 모두 허물고 공원 전체가 한눈에 투시될 수 있게 설계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밝게 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 같은 담장 허물기³⁾는 이후 공원뿐 아니라, 각종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관공서, 학교, 개인주택 등으로 확대되는 데, 경상감영공원은 이러한 '담장허물기운동'의 첫 대상이 된 공원이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중앙공원 재정비와 더불어 동인공원(現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도 전면 재조성되었다. 동인공원은 1982년 10월 11일 건설부 고시 제336호로 공원으로 결정·고시되고, 1984년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었다(그림 7 참조). 그러나 이 계획은 재정문제 등에 부딪혀 실현되지 못하였고, 이후 이곳에는 대구경찰청과 경북지사 관사, 전매청 관사, 공무원 교육원, 중앙도서관, 중구청 등의 공공시설물과 행정기관이 잇달아 들어 서 공원 부지가

그림 7. 동인공원 조성계획도(1984년)

자료: 대구직할시, 1984: 75

잠식되어 도심의 공원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었다.

대구는 1996년부터 동인공원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부지 내 건축물의 이전과 용지편입을 추진하여 본격적인 공원 재조성 사업을 펴 나갔다. 대구시는 우선 경북지사 관사터와 전매청 관사터를 공원 용지로 확보하고, 1997년 대구경찰청이 수성구로 옮겨가자 그 부지 또한 공원 용지에 편입시켰다. 그리고 1997년 일어난 국제보상운동의 발원지인 대구의 자긍심을 고취한다는 취지에서 공원의 이름을 '국제보상운동기념공원'으로 변경하였다(대구매일신문, 1997.10.6).

1998년 5월 국제보상운동기념공원은 북측 보도를 정비하고, 녹도를 조성하여 1단계 조성계획이 준공되었고, 중구청 이전 후에는 공원조성공사에 박차를 가하여 1998년 12월 달구벌대 중 및 중각이 준공되었다(대구매일신문, 1998.12.21). 이렇게 단계적으로 진행된 국제보상운동기념공원은 공사 시작 2년 만인 1999년 12월 21일 공원 전체가 준공되어 시민에게 개방되었다(대구매일신문, 1999.12.21).

한편, 국제보상운동기념공원의 준공과 더불어 그 주변에 위치한 경북대학교 의과대학과 부속 병원 부지도 이와 연계하여 담장을 허물고 새롭게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도시 공공녹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됨으로써, 이 일대는 대구의 대표 경관으로 자리잡게 된다.

이외에도 2003년 12월에는 중앙초등학교 부지에 2·28기념 중앙공원이 조성된다. 대구 도심부에 위치해 있던 중앙초등학교는 1990년대 이후 학생수가 급감하면서 존폐 위기에 놓이게 된다. 결국 학교가 이전하게 되면서 학교 부지 사용을 놓고 여러 의견이 제시되었지만, 시민단체들이 '범시민 공원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원 조성을 주도하게 된다(대구매일신문, 1999.5.11). 시민단체의 활동과 여론 형성에 의해 공원으로 결정된 후에도 공원의 명칭을 두고 2·28대구민주운동기념사업회와 중앙초등학교 총동창회 사이에 또다시 논란이 일어나게 된다. 결국 양측의 의견을 절충하여 공원 이름을 2·28기념중

앙공원으로 최종 결정하게 되었다(대구매일신문, 1999.5.19).

III. 도시공원의 변천에 나타난 사회적 의미

1. 1960년대 대구 도시공원 변천의 의미

우리나라에 있어서 본격적으로 도시공원이 조성되기 시작한 시기라 할 수 있는 1960년대에 대구에는 달성공원과 중앙공원이 조성되었다. 이 두 공원은 역사유적지를 정비하여 개원된 곳이며, 공원이 위치한 곳의 지명을 공원명으로 하였다. 도시공원 조성 초기인 1960년대에 시민의 접근이 용이하고, 공원 조성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도심지내 역사유적지의 공원화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각종 정치적 사건 등으로 사회가 혼란했던 1960년대에는 도시공원이 공원으로서 본래의 목적 이외에 권력 확보와 정권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 공원의 이용이 제한되거나 시민의 여가생활 조차도 통제를 받는 경우가 있었다. 1960년대 대구 도시공원 변천의 의미를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2. 1970년대 대구 도시공원 변천의 의미

급격한 도시화와 폭발적인 인구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도시공원의 양적 확보에 주력한 1970년대에는 앞산공원, 망우공원, 두류공원 등의 대규모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었다.

1970년대에 수립된 도시공원 조성계획은 주로 자연경관이

표 3. 1960년대 대구 도시공원 변천의 의미

구분	내용
시대적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19 학생의거, 군사정권 수립 등으로 대표되는 사회 혼란기 · 보릿고개가 언급되는 경제적 빈곤기 · 본격적인 근대화의 시작
도시 공원의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 징 : 도시계획시설의 하나로 인식 · 조성공원 : 달성공원, 중앙공원 · 조성위치 : 도심에 위치한 역사 유적지를 공원화 · 공원명칭 : 도시공원이 위치한 곳의 지명을 따서 명명 · 공원성격 : 주로 정적인 공간으로 구성
도시 공원의 사회적 의미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시공원이 본격적으로 조성되기 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의 기반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재정비가 추진되면서 동시에 도시공원도 조성·재정비되기 시작 (2) 도시공원 조성보다는 지정에만 급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 1차 도시계획재정비에서 언급된 26개의 도시공원 중 실제로 개원된 곳은 2곳에 불과 (3) 정치적 목적으로 도시공원 이용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19 이후 대모 모의 장소가 된다는 이유로 달성공원 폐쇄 (대구매일신문 1960년 5월 7일자) · 5·16 이후 혁명정신을 내세워 여가생활통제 (대구매일신문 1961년 5월 22일자) ·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종 집회 등으로 공원 이용시 사용료 부과하는 「공원사용조례」 제정 움직임 (대구매일신문 1966년 6월 11일과 1967년 3월 31일자)

표 4. 1970년대 대구 도시공원 변천의 의미

구분	내용
시대적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사정권의 장기집권과 반대세력간의 충돌로 인한 정치적 혼란기 · 도시개발의 가속화로 급격한 도시화 진행 · 폭발적인 도시인구 증가
도시 공원의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 징 : 도시공원의 양적 확대에 주력 · 조성공원 : 앞산공원, 망우공원, 두류공원 · 조성위치 : 도심 외곽지에 위치한 자연풍경지를 공원으로 · 공원명칭 : 주로 도시공원이 위치한 곳의 지명을 따서 명명 · 공원성격 : 부분적으로 동적시설이 추가되었으나, 전체적으로 정적인 성격이 우세
도시 공원의 사회적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시공원의 양적 확대에 주력 · 대규모 공원조성계획 중북적으로 수립 (2) 도시공원이 정권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선거전에 이용 · 야당의 선거 유세가 있는 날에 달성공원 무료개방 (대구매일신문 1970년 11월 11일자와 1971년 4월 21일자) (3) 도시공원 조성 과정에 전이행정적 측면이 강하게 작용 (대구매일신문 1971년 6월 4일자와 1977년 4월 20일자) · 대규모의 이상적인 공원계획 수립 · 비현실적인 대규모 공원조성계획 중북적으로 수립 · 계획기간 내에 마무리 못해 조성사업이 1980년대까지 지속

수려한 풍경지와 명승지에 계획되었고, 복합적인 성격을 지닌 대규모의 공원으로 계획되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인구 증가와 도시화 등으로 도시가 거대화됨에 따라 도시의 기초적인 기반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도시공원 또한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계획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그러나 당시의 공원조성계획은 시대적 상황과 재정적인 문제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과도하게 수립되어 결국 예산부족 등으로 공원조성은 계획기간 내에 완공을 보지 못하고 1980년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1970년대 대구 도시공원 변천의 의미를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이러한 대규모 공원계획과 미조성 과정을 당시 지역 일간지에서는 전이행정적 측면이 강하게 부각되어 나타난 결과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도시공원이 정권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선거전에 이용되는 등 도시공원의 계획과 개원과정, 공원 운영·관리 등이 각종 정치적 사건들과 밀접하게 연관되기도 하였다.

3. 1980년대 대구 도시공원 변천의 의미

1980년대에는 생활수준과 의식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여가 생활이 보편화되면서 도시민의 휴식과 레크리에이션 장소로 도시공원의 중요성이 한층 더 부각되었고, 1986년과 1988년 두 차례의 국제대회 개최에 대비하여 도시미화를 목표로 각종 녹화계획이 수립되면서 도시공원의 미적 기능이 재인식되었다. 이에 따라 대구시도 1970년대부터 추진된 앞산공원과 두류공원의 조성계획을 새롭게 수정하여 추진함과 동시에, 대구시의 균형개발을 고려하여 동부지역에 위치한 범어공원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유희시설을 갖춘 대규모 공원으로 조성하

표 5. 1980년대 대구 도시공원 변천의 의미

구분	내용
시대적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60년대부터 이어진 경제성장으로 경제적 빈곤에서 탈피 ·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등의 국제대회 개최
도시 공원의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 징 : 도시공원의 미적 기능이 중요시 · 조성공원 : 범어공원, 앞산공원, 두류공원 · 조성위치 : 도시의 균형 개발을 고려하여 위치 선정 · 공원명칭 : 주로 도시공원이 위치한 곳의 지명을 따서 명명 · 공원성격 : 정적인 공간과 동적인 공간을 적절히 배치
도시 공원의 사회적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양하고 복합적인 시설을 갖춘 도시공원이 등장 · 정적공간과 동적 레크리에이션 시설로 구성 (2) 도시 균형개발을 고려한 공원 위치 선정 · 동부지역 대규모 공원계획 수립 (3) 대규모 국제경기에 대비하여 도시공원 단장 · 각종 도시녹화사업과 도시미화사업 시행 · 도시녹화7개년계획(1981) · 제1차 공원유원지개발계획(1982) · 푸른대구가꾸기 5개년계획(1982) · 전지역(全市域) 공원화 운동 추진계획(1985)

고자 하였다.

또 이 시기에 조성된 도시공원들은 대부분 정적공간뿐만 아니라, 동적 레크리에이션 시설을 함께 갖춘 종합적인 성격을 구비한 공원으로 계획되고 조성되었다. 1980년대 대구 도시공원 변천의 의미를 분석하여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4. 1990년대 이후 대구 도시공원 변천의 의미

1990년대는 세계적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도시공원의 환경적 기능과 효과가 부각되어 도시공원의 중요성이 새삼 강조된 시기였다. 이에 대구시는 공용의 청사나 학교 등의 공공시설 이적지를 공원으로 조성하여 도심의 도시공원 면적을 늘려나가는 한편, 외곽지에 다양한 이용이 가능한 종합공원의 성격을 띤 대규모의 도시공원을 계획하여 도시공원의 양적 확대에 주력하였다. 이와 동시에 도심에 위치한 기존 공원을 재정비하고, 도시공원을 무료 개방하는 등 도시공원의 질적인 측면의 개선에도 주력하였다.

또한 지방자치시대의 개막으로 각 지방의 특색을 살리기 위해 이 시기에 재정비되거나 새롭게 조성된 도시공원은 단순히 지명을 토대로 명명된 기존의 도시공원들과는 달리 대구의 역사성과 향토성을 나타낼 수 있는 이름으로 명명되기 시작했다.

한편, 사회 전반의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 증대와 녹지문제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 관심 표명으로 각종 시민단체들의 활동이 활발해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양상은 도심지에 위치한 학교나 공용의 청사 등의 공공시설 이적지가 도시공원으로 지정되거나 확대 조성되는 과정에 시민들의 의사가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결과를 낳았다. 1990년대 대구 도시공원 변천의 의미를

표 6. 1990년대 이후 대구 도시공원의 의미

구분	내용
시대적 상황	· 국내외적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대 · 지방자치제도의 도입으로 지방자치시대의 개막
도시 공원의 특성	· 특 징 : 도시공원의 환경적 기능과 효과가 부각 · 개원공원 : 경상감영공원,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봉무공원, 2·28기념중앙공원 · 개원위치 : 도심 기존 공원의 재조성과 공공시설 이적지 공원화, 시 외곽지 대규모 공원계획 수립 · 공원명칭 : 지방의 향토성과 역사성을 부각 · 공원성격 : 다양하고 특색있는 성격의 도시공원 조성
도시 공원의 사회적 의미	(1) 도시공원의 양적 확대와 함께 질적 개선에도 주력 · 도심지의 환경개선을 위해 도심의 공원 면적확대에 주력 · 도심지의 기존 도시공원 재정비 · 도시공원 무료개방 (2) 시민의 의견이 반영된 도시공원 조성 · 도시공원 조성과정에 시민단체가 참여 · 시민의 욕구를 고려한 복합적인 성격의 도시공원 조성

분석·정리하면 표 6과 같다.

IV. 결론

본 연구는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시대별로 도시공원의 계획·개원과정을 분석하고, 이를 시대적 상황과 연관 지어 고찰하여 도시공원의 변천에 나타난 사회적 의미를 해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표 7과 같다.

먼저, 1960년대에 접어들어 도시계획법과 공원법이 제정되면서 대구에서도 본격적으로 공원 계획과 조성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1960년대에는 도시공원을 도시계획시설의 하나로만 인식하여 공원의 조성보다는 지정에만 급급하였다. 1970년대는 급격한 도시화와 폭발적인 인구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도시공원의 양적확보에 주력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계획기간 내에 공원 조성이 완료되지 못하였다. 1980년대는 연이은 대규모 국제대회 개최로 인하여 도시미화를 위한 각종 녹화

계획이 수립되면서 도시공원의 미적 기능이 재인식되었으며, 정적공간뿐만 아니라 동적시설을 갖춘 복합적인 성격의 도시공원이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이후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 증대와 함께 공원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표명 및 참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며, 도시공원의 환경적 기능과 효과의 부각에 따라 도시공원의 양적 확대뿐 아니라 질적 개선도 함께 이루어졌다.

우리나라에 있어 근대적 의미의 도시공원 도입은 구한말부터이고, 본격적으로 도시공원이 조성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부터이다. 하지만, 본 연구를 통해서 도시공원의 변화과정에 나타난 사회적 의미를 종합해 볼 때 대구에서 시민을 위한 ‘공용(共用)의 휴식처’라는 본연의 의미와 목적에 부합되는 도시공원 개념이 완성된 것은 1990년대에 와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전의 도시공원들은 정권유지와 권력확보를 위한 정치적 목적이나 전시행정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도시공원 조성계획 시에는 무엇보다도 시민의 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다양한 이용욕구를 수용하여 적극적인 공원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오늘날에 와서는 도시공원이 그 도시의 문화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로 이해되고 있으므로, 도시공원은 도시의 향토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시의 역사·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조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겠다.

- 주 1. 이상의 도시공원은 광지영(1998)의 “도시경관계획을 위한 대구광역시 대표경관의 인지특성” 연구에서 대구의 전체 대표경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포함되었기에 대구 시민에게 있어서 비교적 인지도가 높은 도시공원이라 사료됨.
- 주 2. 대구시는 1981년 대구직할시로, 1995년 대구광역시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대구시로 명칭을 통일하였다.
- 주 3. 도심의 녹지공간 조성은 물론 이웃간에 단절된 벽을 허물어뜨리고 서로 터놓고 지내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있는 ‘담장허물기운동’은 중앙공원재정비를 시작으로 주창되어, 1999년 5월 이후에는 대구 사랑운동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의 결과로 2010년까지 총 608개소, 25,400m의 담장이 허물어져 348,000m²의 녹지공간이 조성되었으며, 타 자치단체에 소개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표 7. 시대별 대구 도시공원에 나타난 사회적 의미

구분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이후
시대적 상황	· 경제적 빈곤 · 근대화의 시작	· 도시화 진행 · 도시인구 증가	· 소득 증대 · 국제화 · 여가문화 등장	· 환경문제 대두 · 지방자치시대 개막
도시공원의 특성	특징	· 도시계획시설로 인식	· 대규모의 종합공원 계획	· 미적 기능 강조
	개원위치	· 유적지 공원화	· 자연풍경지 공원화	· 도시 균형개발 고려
	공원성격	· 대부분 정적공간	· 일부 동적시설 도입	· 정적공간+동적공간
도시공원에 나타난 사회적 의미	· 본격적으로 조성되기 시작 · 조성보다는 지정에 급급 ·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제한	· 양적 확대에 주력 · 비현실적 공원계획 ·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	· 복합적인 공원시설 · 국제경기를 위한 도시미화	· 양적 확대+질적 개선 · 시민의사 직접적으로 반영 · 도시공원 개념완성

인용문헌

1. 강신용(1995) 한국근대 도시공원사. 도시출판 조정. pp.1-6.
2. 강신용(1995) 韓國における近代都市公園の受容と展開. 일본 경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3. 김덕삼(1990) 한국 도시공원의 변천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4. 김향자(1987) 도시공원 계획의 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5. 대구광역시(1996) 중앙공원조성기본계획. p.43.
6. 대구광역시(1998) 공원·유원지 현황. pp.166-176.
7. 대구광역시 중구(1998) 경상감영사백년사. pp.801-808.
8. 대구매일신문. 1958~2013년 주요일자.
9. 대구시(1971) 앞산공원조성계획.
10. 대구시(1978) 봉무불로공원 조성계획.
11. 대구시(1979) 범어공원기본계획.
12. 대구시사편찬위원회(1995) 대구시사 제3권 산업·경제. pp.1120-1124.
13. 대구직할시(1982) 대구의 향기. pp.330-335.
14. 민주현(1994) 서울시 공원녹지 형성과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5. 향토사교육연구회(1996) 대구역사기행. 도서출판 나랏말. pp.104-105.
16. Cranz, Galen(1995) The Politics of Park Design. The MIT Press.

원 고 접 수 일: 2013년 4월 10일
 심 사 일: 2013년 5월 2일(1차)
 2013년 6월 24일(2차)
 계 재 확 정 일: 2013년 6월 24일
 4 인 의 명 심 사 필